



칼빈주의의 문화사상적 특징

김 영 한 명예교수(기독교학술원장/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한글초록

칼빈주의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사상체계다. 칼빈주의는 단지 하나의 교리적 체계에 머물지 않고 이 사상이 들어가는 곳 마다 정치 사회 문화 구조를 변혁시키는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화란의 신칼빈주의자 카이퍼는 칼빈주의를 “삶의 체계”라고 규정하였다. 칼빈주의의 문화사상적 특징은 1.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2. 신율적 세계관 3.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 4. 신법(神法, divine law) 사상 5. 소명 사상 6. 기독교자의 자유론: 아디아포라(adiaphora) 교리 7. 창조의 질서 긍정 8.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저항의 권리 9. 삶의 체계: 칼빈주의는 문화변혁 운동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칼빈주의는 근대 서양 문화의 형성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칼빈주의는 단지 하나의 종교적 체계로서가 아니라 삶의 체계로서 서구 문화사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과 문화변혁 사상 등 9가지 특징은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사회에 자유와 인권과 독립을 가져다 주었다. 시민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진보주의가 구현되었다. 네덜란드의 독립, 영국의 명예혁명,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 미국의 독립운동에 공헌하였다. 칼빈주의는 장로교가 다수인 조선의 개화와 3.1독립운동 그리고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말살한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처한 한국사회의 반공주의, 해방된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을 하였다.

주제어: 칼빈, 문화, 삶의 체계, 신법, 아디아포라, 신율적 세계관, 영역 주권론

머리말

칼빈주의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사상체제다. 칼빈주의는 단지 하나의 교리적 체계에 머물지 않고 이 사상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치 사회 문화 구조를 변혁시키는 운동을 일으켰다. 칼빈주의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정치제도를 통하여 의회주의를 정립했으며,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가져왔으며, 16세기 말 스페인의 억압적인 지배로부터 화란의 독립운동을 가져왔으며¹⁾, 신대륙에서는 청교도 순례자들을 통하여 미국이라는 국가를 세웠고 민주주의를 꽃피었다²⁾. 한국의 근대화 운동에는 장로교를 중심한 칼빈주의 정신이 뒷받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화란의 신칼빈주의자 카이퍼는 ‘전세계적으로 인생과 사유에 독립적 형태를 발전시킨 독립적인 전체 경향’으로서 칼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를 ‘삶의 체계’라고 규정하였다.³⁾ 본 논문은 칼빈주의가 가진 문화사상의 신학적 바탕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칼빈주의의 문화사상적 특징은 1.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2. 신율적 세계관 3.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 4. 신법(神法, divine law) 사상 5. 소명 사상 6. 기독교자의 자유론: 아디아포라(adiaphora) 교리 7. 창조의 질서 긍정 8.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저항의 권리 9. 삶의 체계: 칼빈주의는 문화변

-
- 본 논문은 2012년 11월 26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한국교회법연구원에서 발표한 강연 “칼빈주의의 특징”에 기초하며 필자의 발표논문 “칼빈과 문화”(『칼빈과 21세기』, 부흥과 개혁사, 2009, 285-311), 그리고 “문화신학으로서의 칼빈신학”(『칼빈의 성경해석학과 신학』, SFC, 2011, 200-220)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본 기초강연을 위하여 제목과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다.

- 1) 로버트 갓프리, “네덜란드의 칼빈과 칼빈주의,” in: W. Stanford Reid(e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홍치모, 이훈영 역, 『칼빈이 서양에 미친 영향』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109-141.
- 2) 조지 마르스덴, “미국의 ‘기독교적 기원’: 하나의 사례로서의 청교도 뉴잉글랜드,” in: 『칼빈이 서양에 미친 영향』, 293-320
- 3)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898, 1976.

혁 운동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

1.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칼빈주의의 모든 사상은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절대주권(absolute sovereignty) 사상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은 칼빈 사유의 실질적 원리이다.⁴⁾ 창조자, 섭리자, 통치자, 구속자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물 및 그것들의 모든 활동을 주관하신다. 이 교리는 다른 모든 교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만물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세밀하셔서 인간 실존의 미세한 영역까지 두루 미친다. 하나님은 세계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와 인간의 운명의 진로와 흥망성쇠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주로서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현존하는 권위와 기구와 존재 가운데 그의 창조적인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의지는 인간적인 업적의 영역에서 인류역사 과정과 자연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뜻에 종속한다. 칼빈주의는 인생, 세계, 자연과 우주의 과정을 영원의 상 아래서(sub specie aeternitatis), 말하자면, 하나님 주권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려고 한다.⁵⁾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세계관이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에 기초하여 일반은총(common grace)의

4) Robert D. Knudsen, "16세기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전파," 홍치모, 권태경 편역, 『칼빈과 나스』, 새한, 2009, 112

5) W. S. Reid, "The Impact of Calvinism on Sixteenth Century Culture,"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Reformed Faith and Action* 10 (1967, 3 ff., 그리고 I. T. Mc 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226 ff.

영역과 특별은총(special grace)의 영역을 분리시키지 않는다.⁶⁾ 일반은총을 영어로는 “공동은총”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자와 비신자에게 공동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다. 비신자라고 할지라도 출생과 성장과 삶의 영위 자체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사역에 관하여 설교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행 17:24-28상). 구원은은총은 일반은총에 부가해서 주어지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구원 은총(salvation grace)은 특별히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은총이라고 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두가지 빛을 말한다. 첫째, 창조의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고 이해하도록 인간에게 광채를 주신다. 둘째,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고 갱신하신다.⁷⁾ 하나님은 불신세계와 이방문화가 타락한 상태에서도 일반은총을 통해서 빛을 보도록 하신다. 가인의 후예들이 비록 구원을 받지 못했으나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와 예술의 개선을 가져왔다.⁸⁾ 칼빈이 창립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는 세상의 지혜, 즉 세상의 인문학, 과학, 의학과 철학이 하나님의 학문, 신학, 즉 천국의 지혜와 공존하였다.

칼빈주의는 일반은총론의 견지에서 세상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좋고 흠모할만한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칼빈주의에는 루터주의 같이 현실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배척하는 배타적 사고가 없다. 세상의 모든 영역, 심지어 사탄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영역으로 본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교리적 신이 아니라 세계와

6)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Grand Rapids: Baker, 1988, 103-104

7) John Calvin, *Commentary on John 1:15*

8) John Calvin, *Commentary on Genesis 4:20*

우주의 섭리자로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자연계와 역사와 우주를 주관(主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 면전”(coram deo)을 강조하였다.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서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2. 신율적 세계관

1) 제네바 아카데미의 이념: 인문주의 정신 존중

칼빈주의의 창시자인 칼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라는 신정(神政)주의(Theokratie) 이상(理想)을 그가 1559년 6월 5일 제네바에서 창립하고 그의 제자 베자(Theodore Beza)를 교장으로 세우고 개교식을 가진 아카데미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였다. 칼빈은 제네바대학 개교 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설교, 성경 강해, 교리문답을 통한 교회교육에서 더 나아가 지도자로 하여금 기독교 사회 형성의 교양과 지도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칼빈이 전 생애를 바쳐서 세운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인문주의 정신을 존중하였다.⁹⁾ 목회자들이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선 인간을 바로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고전을 많이 읽도록 권장되었다. 교육제도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초등 단계인 사립학교(schola privata)와 둘째 단계인 공립학교(schola

9) W. Fred Graham, *The Conserva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Richmond: John Knox Press, 1971), 150

publica)다.¹⁰⁾ 전자는 초등교육의 수준이고, 후자는 고등교육 수준이었고, 신학교로서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후자를 말한다. 사립학교는 7년 과정으로 헬라어, 라틴어, 변증법을 공부하고, 희랍과 로마의 고대학자들(버질 Virgil, 시세로 Cicero, 가이사 Caesar, 호머 Homer, 데모스테네스 Demosthenes 등)의 글을 읽는 과정이다. 언어와 고전을 강조하는 이런 교육은 전형적인 인문주의 교과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고등교육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다양한 과목(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문학, 변증학과 수사학, 물리학, 수학, 민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최고과정인 신학부가 있다. 신학은 모든 학문의 왕좌로서 문학과 철학과 과학은 신학을 위한 준비과목이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스콜라주의에 기반을 둔 전통적 대학들과 달리 인문주의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구상되었다. 신학연구도 어학과 교양학문의 기반 없이는 헛된 것으로 보았다.¹¹⁾ 이처럼 제네바 아카데미는 신학과 인문주의를 종합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시민정부에서 일할 기독교 공직자를 양성하는 대학이었다. 아카데미의 목표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인의 양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잘 다루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모든 학생들은 신앙고백에 서명해야 했으며, 참된 경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을 받았다.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개혁신앙을 가진 목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칼빈의 개혁사상은 이곳에서 수학한 각 나라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아카데미가 개교시에는 학생 수가 6백명이었고,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몰려 왔다. 첫 해 등록생 수는 9백명까지 늘어났다. 아카데미의 건물이 완성된 1564년에는 학생수가 1500명이나 되었고,

10)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이레서원, 2001, 418

11) 박경수, '개혁교회의 요람 제네바아카데미(1559)에서 배우는 신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2012.02.03, 23:00, <http://blog.daum.net/iyunjeong/8718055>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온 자녀들로서 주로 신학과 법학에 능한 인재들이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수준 높은 학문을 가르치는 이상적인 학교였다. 사실 제네바 아카데미는 개혁주의 신학의 센터이자 개혁주의 선교센터이기도 했다. 여기서 철저히 훈련 받은 학생들(존 낙스 등)이 각기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개혁교회를 건설하게 됐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과 북유럽 국가(덴마크, 스웨덴, 노웨이, 핀란드)와 민족에게만 영향을 끼쳤으나, 칼빈은 남부 독일, 스위스, 프랑스, 화란, 영국, 미국, 헝가리, 한국 등 세계적으로 그 사상을 널리 폈다.

2) 신율적 삶

칼빈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신율적(theonom)이어야 한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존재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에 대하여 창조의 질서라는 자연법과 죄인인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 자신은 이 법 위에 초월해 계시며, 이 법의 제재(制裁)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과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한다. 신율성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그의 창조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 있으며 그러므로 우주와 역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추어야만 원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창조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만물이 지닌 창조 질서에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지혜와 솜씨가 드러나고 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이다. 직장도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이다. 통치자는 법의 구현자(lex animata)이다. 칼빈은 자연법(justum natura)과 국가법(justum constitutiones)

을 구분하였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이다. 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연법을 통하여 자신을 언제 어디서나 계시하였다. 자연법은 모든 실정법의 기본이며 그 한계를 설정해 준다.¹²⁾ 모든 법과 권위는 궁극적으로 자연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주의 사상이 주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자율적 문화란 칼빈주의에서는 생각될 수 없다. 계몽주의는 신의 지배를 벗어나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했다. 그리하여 자율성(autonomy)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 문화란 하나님의 법, 율법과의 불가분적인 관계, 그의 법에 대한 순종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신율성(theonomy)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타율성(heteronomy)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타율성이란 포로기 이후의 율법이해거나 이슬람의 샤리아(sharia)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말한다. 외부적 강압에 의한 지배나 통치를 의미한다. 절대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시는 폭군이나 강압적인 군주적 신이 아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구약시대 신앙의 선조들도 이미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신이 아니라 자비와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했다. “여호와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103:8-9).

12) Josef Bohatec,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Organismusgedankens*, 101, 106

3.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

칼빈주의와 루터교는 같은 종교개혁의 뿌리에서 나왔고, 칼빈(1509-)은 루터(1483-)보다 26세나 년배가 아래였고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루터교는 로마 천주교를 개혁하고자 노력했으나 예배의식이나 성찬론, 교회직제관에 있어서 시대적 제약 때문에 로마 천주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명목론자 옥캄의 제자로서 루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면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외면적인 것, 문화적인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접촉점을 찾지 못했다.¹³⁾ 루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제를 위해 싸우면서 중세 천주교의 제도적 기독교에 대하여 주관적이며 인간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교황적 기구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sanctorum communio)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루터는 교회를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있는 대표적이며 권위적인 교사로 보았고, 로마 천주교의 성례관과 예배의식, 직제론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필자가 유학한 독일에서의 경험에 미루어 루터 교회당과 예배의식은 천주교의 교회당과 예배의식과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루터의 공재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떡과 포도주 ‘안에’, ‘아래’, 그리고 ‘함께’ 존재한다고 주장¹⁴⁾하는 점에 있어서 천주교의 화체설에 상당한 부분(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공간적 현존)에 의존하면서 천주교의 미신적인 것(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함)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통해서 성찬의 미신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성령의 현재화를 통한 기념적이고 언약적이며, 영적 교제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¹⁵⁾ 그리

13) Knudsen, Robert D. “칼빈주의가 문화에 미친 영향” in: 홍치모, 권태경 편집, 『칼빈과 나스』, 2009, 139-140

14)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941, 『조직신학』(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916

15) Robert Letham, “Calvin’s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in the Context of his Overall Theology,” in: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편), 『칼빈의 성찬론과 오늘날의 개혁교회』, 2010, 105

고 칼빈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학적 원리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칼빈은 바로 신자 안에서 교회를 보았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 이어지는 선을 그었다. 칼빈은 교회당의 모든 성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제단까지 없애고 설교단만 배치하였다. 성찬관도 “칼빈주의적 외부”(Extra Calvinisticum)라는 공식을 통해서 신성이 인성을 초월해 있음을 강조하였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제라는 근본적 해석을 주창한 것은 칼빈이 유일하다.

칼빈주의에는 문화에 대한 이원론적 태도가 없다. 여기서 문화란 언어, 법률, 사회적 관습 등 인간이 설정한 질서를 가르킨다. 루터주의에는 내면적 영역과 외면적 영역을 구분하는 이원론이 자리잡고 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으로 이 이원론을 극복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현되며,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humanum) 사이에 이원론이 없다. 인간행위에 있어서도 내면적 영역과 외면적 영역 사이의 이원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영지주의의 신(神)처럼 물질과 문화의 영역을 멸시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격하함으로써 자기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 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은 인간성 안에서 존귀케 되신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타락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얼마간의 신의식(sensus divinitatis)을 남겨 놓으셨다.

칼빈주의는 이 외면적 영역 역시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인간의 마음 속에 칭의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서도 인간의 삶을 지배하시는 주권적인 섭리의 하나님이다.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은 바

로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칭의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선(善)하다'는 사상에서 나온다. 인간 행위의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다. 선(善)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적합성에 달려 있다. 칼빈주의는 중세교회 사상이 토마스(Thomas)의 자연과 은총의 이중구조론을 거부한다.

토마스는 자연과 은총의 질서를 상하구조로서 파악하였다. 은총의 세계에는 신앙이 주관하고, 자연의 세계에는 이성이 지배한다. 은총의 세계에는 종교, 윤리, 신학, 교회가 포함되며, 계시가 주관한다. 자연의 세계에는 학문, 이성, 정치, 경제, 사회가 포함되며, 문화가 지배한다. 은총은 하나님의 계시에 지배를 받으며, 성만찬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주시는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 지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에의 종속에 머물며, 구원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하여 토마스 이후 중세교회는 문화의 전 영역을 교회의 지배 아래 두었으며, 신학의 종이 되도록 하였다.¹⁶⁾ 토마스의 영향을 계승한 중세교회와 오늘날의 천주교는 종교를 천주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고, 종교의 영향력을 천주교회가 봉헌한 삶의 부분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삶의 봉헌된 부분과 세속적 부분의 경계선을 긋는 이원론적 체계는, 종교를 일상 생활에서 축제나 절기(성탄절, 부활절, 유아세례, 입교식, 결혼식, 장례식), 번영의 시절에서 위함과 병든 때로, 삶의 충만한 때로부터 다가오는 죽음의 때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에 반대하면서 칼빈은 문화를 계시 아래 두는 저급한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역으로 봄으로써 문화의 영역을 하나님 주

16)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성암사, 1984, 137

권의 영역으로 끌어 올렸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우리 삶에 자연의 영역이 아래에 있고, 계시의 영역은 위에 있어서, 상하계층 구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계시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원론자들은 종교를 감정이나 의지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고 지성의 범위에서 배제시켰다. 그에 따라 종교가 과학에서 배제되고 종교의 권위가 공적 생활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종교의 영역이 윤리적 생활로 국한되고, 개인적인 은신처로만 여겨진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교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일부 경건한 사람들과 관계 있는 종교가 된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영역이며, 네덜란드의 문화신학자요 신칼빈주의자로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디디는 발걸음의 어느 한 면적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 카이퍼는 일반은총 개념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 죄로 인해 그의 거룩한 사역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죄의 과정을 통제하셨다.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통하여 개인과 인류의 생활, 그리고 자연의 삶에 간섭하신다. 이 은총은 죄의 핵을 멸하고,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인간의 견문과 학식이 야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처럼 죄의 효력을 억지한다.”¹⁷⁾

칼빈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예술의 능력이 일반은총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본다.¹⁸⁾ 일반은총은 인류의 예술들의 발명과 계발, 천문학, 철학, 의학과 시민정부의 질서들에서 드러난다.¹⁹⁾ 카이퍼는 칼빈의 일반은총 개념을 발전시켜 일반은총적 문화론을 발전시켰다. 카이퍼는 칼빈이 제시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발전시켜 영역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sphere

17)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31/1983), 123-124

18) John Calvin, *Institutio*, II, 2, 16.

19) 최운배, 『갈뱅신학 입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671

sovereignty)의 사상을 창안하였다.²⁰⁾ 영역주권사상에 의하면 창조의 각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고유한 질서와 법칙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이다.²¹⁾ 영역주권은 모든 영역에 대한 절대주권에서 나오는 파생적 주권(a derived sovereignty)이다. 영역주권은 하나님께서 삶의 구체적인 각 영역 안에서 그 자체의 질서와 법칙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각 자기의 고유한 영역(문학,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소명하시는 문화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위임을 받은 것이다. 카이퍼는 칼빈주의적 낙관주의적 문화론을 수립하였다.

카이퍼는 영역주권을 창조 원리로 재해석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인 동시에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그 종류대로(after its kind) 창조하셨다. 카이퍼는 이 “종류대로”의 창조 개념을 생물학적 영역에 그치지 않고 모든 창조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마치 정치가와 학자와 예술가의 소명이 다르고 교수와 목사와 의사의 소명이 다르듯, 창조세계의 다양한 국면들 속에도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주권적 영역이 있다. 카이퍼는 구원의 적용범위를 인간 뿐 아니라 창조세계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그 최종목적은 원(原) 우주의 총체적 회복에 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타락된 인류 구속을 위한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파괴되고 왜곡된 창조세계의 회복자이시다.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을 회복함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카이퍼는 이 세상을 ‘거룩’과 ‘세속’으로 이

20) Abraham Kuype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1880, Kampen: 3. edition, 1930

21) 김영한, 『한국기독교문화신학』, 7장 카이퍼와 스킵터의 신학적 문화론, 성광 문화사, 1995, 193-223

원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기독교적 근본주의(Christian fundamentalism)를 종교적 은둔주의 내지 도피주의라고 규정하고 이를 비성경적인 것으로 본다. 카이퍼에 의하면 신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삶의 모든 차원에 미치며 어느 하나라도 빼어낼 수 없는 영역이다. 어느 세속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영역은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미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하의 세계, 마피아의 영역, 지옥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미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교회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학교와 직장과 학문과 과학과 문화와 예술과 같은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²²⁾

이 같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카이퍼가 세운 화란자유대학 법철학 교수(1926)를 지내고 화란 왕립과학원 회원이었던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였다. 탁월한 기독교 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를 통해 영역주권 사상은 개신교 영역 안에서 등장한 정치철학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개혁주의 세계관의 전통을 충실하게 반영한 기독교 정치철학이 되었다. 이것이 도예베르트의 우주법 이념(the idea of cosmic law)의 철학이다.²³⁾

4. 하나님의 법(神法, divine law) 사상

칼빈주의에 의하면 문화를 포함한 인간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

22)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사상은 1880년 10월 카이퍼가 설립한 화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te Amsterdam)의 활동과 1898년 미 프린스턴 대학에서 행한 칼빈주의에 관한 스톤 강좌(Stone Lectures)에 잘 나타나 있다(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31, 1976(9th printing), 1983)

23) 김영한, 『21세기와 개혁사상』(III), 제 6장 개혁주의 철학사상,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69-223

를 받는다. 모든 인간의 문화행위는 하나님의 법에 타당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이며, 이는 그분의 계시인 율법에 표현되어 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복종할 때 의미를 갖는다. 율법은 두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라는 특수계시적 측면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창조와 섭리적 경륜이라는 보편계시적 측면이다. 십계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으로 일컬어지나 우주와 세상의 질서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으로 일컬어진다. 칼빈이 그리고 있는 우주와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은 포악한 전제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질서와 아름다움과 대칭과 장대함과 절묘함을 가진 웅장한 건축가의 모습이다.²⁴⁾

하나님의 법은 창조물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오묘한 질서 하나 하나가 창조자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창조에는 질서가 있다. 창조의 오묘함과 선함과 질서 정연함은 우연히 된 것이거나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오묘한 법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자연법으로는 인간의 욕심과 죄를 제어(制御, control)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법은 국가 권력으로 유지된 법을 통해 보완되고 해석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실정법(實定法, the positive law)도 그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자연적 의(iustum natura)와 실정적 의(iustum constitutione)가 구분된다. 실정적 의는 자연적 의에 기초해야 한다.

법치국가의 핵심은 상호적 의무(mutua obligatio)이다.²⁵⁾ 통치자의 권위조차 그가 제정한 실정법에 복종해야 한다.²⁶⁾ 실정법은 자연법의 원리를 따라야

24) Léon Wencelius, *L'esthétique de Calvin*(Paris: Société d'Édition 'Les Belles Lettres', n.d.), 30; Robert Knudsen, "칼빈주의가 문화에 미친 영향." 홍치모 편집, 『칼빈과 나스』, 2009, 146

25) Joachim Staedtke, *Johannes Calvin: Erkenntnis und Gestaltung*, 정미현 역, 『장로교의 뿌리 칼빈』, 만우와 장공, 2009, 149

26) Josef Bohatec,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Organismusgedankens*

한다. 칼빈은 자연법의 원리란 “공정함”(fairness)이라고 규정하였다.²⁷⁾ 실정법은 자연법의 특징인 공정함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함이 없는 실정법은 무의미하다.²⁸⁾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파멸되지 않도록 실정법을 통해서 보존하신다. 칼빈은 이러한 일반은총의 측면에서 로마법과 국가권력을 인정했다.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신적인 것은 순수한 인간적인 것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이 양심의 명령을 순종할 때(폭군이 자기의 불의를 뉘우칠 때, 또는 부자가 자기의 탐욕을 뉘우치고, 강도가 자기의 강도짓을 뉘우칠 때)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때(안중근, 윤봉길 등 애국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때, 의인(이수현 등)이 죽음에 처한 자를 위하여 살신성인할 때) 드러난다.

칼빈주의는 자연법을 보편이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로서 창조교리로 부터 분리시켜 이해하지 않는다. 자연법은 창조 질서와 연관되어야 한다. 죄악의 파편터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연질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연법이란 모든 실정법의 기준(criterion)이며, 목표이며, 실정법(實定法, das positive Gesetz)의 한계를 설정해준다.²⁹⁾ 통치자도 실정법을 초월하는 권위를 지닌 자연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하여 통치자는 궁극적으로 모든 율법과 권위의 최후근원인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은 국가법의 부여자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러한 일반은총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의 통치자의 권위를 보여주었고, 통치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명하였다. 일반은총에 의하여 비신자들에게도 있는 도덕성이 양식(良識, sensus communis)이다.

칼빈주의의 자연법 사상은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것 같이 보편적인 우주의 이상(理想) 개념에 근거해 있지 않고 성경의 창조 및 창조 질서에 관한 교

(Breslau :Marcus, 1937), 36

27) Josef Bohatec, *Calvin und das Recht* (Graz:Hermann Böblaus, 1934), 126

28) *Ibid.*, 97, 101, 122, 171

29) *Ibid.*, 101, 106

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³⁰⁾ 이러한 자연법 사상은 칼빈주의의 일반 은총교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정신의 업적이 있음을 칼빈주의자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비신자들 가운데 있는 충효사상, 정직, 정의, 약속지킴, 자비, 사랑의 덕목에서 발견된다. 오늘날 한국기독교에서도 사회적 공공성(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도 비신자들도 이러한 덕목에 관하여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5. 소명 사상

칼빈주의는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다. 인간은 언약적 존재(a covenantal being)이다. 인간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그 분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의 삶 전체가 소명의 영역이다. 삶이 소명인 한, 그 어떤 특별영역에만 소명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칼빈주의는 루터주의가 옥감의 영향으로 설정한 내면적 영역과 외면적 영역의 이원론을 철폐하였다. 내면적 영역은 종교적 영역으로 신성시 되나 외면적 영역은 제도적 영역으로 무시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인간의 모든 영역은 모두 하나님의 소명의 영역이다. 인간의 모든 합법적 행위들은 신성시된다(consecrated). 성직만이 소명이 아니라 노동도 소명의 영역이다. 우리는 교회직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칼빈은 다음같이 피력한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기의 소명을 깨달을 것을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각 분야에 있는 그들의 독특한

30) Joseph Bohatec, *Calvin und das Recht* (Graz: Hermann Böhlau, 1934), 22-24; Robert Knudsen, “칼빈주의가 문화에 미친 영향,” 홍치모 편집, 『칼빈과 낙스』, 2009, 142

의무를 정하셨다.”³¹⁾ 우리가 가지는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응답이다. 세속적인 직업은 국가의 영역에 속해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도 다양한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서로 상호의존하고 있다.

소명의 실천은 바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한다. 이것은 바로 문화적 활동으로 나타난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문화 활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의 실천이어야 한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에서 소명의 실천에 있어서 칼빈은 두가지 측면을 말한다.³²⁾ 하나는 인간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또 하나는 각 개인의 삶은 각 사람에게 재능에 따라서 주신 특별한 소명의 응답이다. 이 특별한 소명은 사람들마다 주신 재능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소명교리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언급한 바같이 “세계내적 금욕주의”(innerweltliche Askese)에 의하여 상공업의 발달에 기여하고 자본주의 정신을 낳게 하였다.³³⁾

칼빈은 인간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다. 그는 병이 많아 늘 아픈 상태로 살아야 했다. 그는 늘 두통과 위통에 시달리고 잔병 치레가 심하여, 열이 나는 데다, 신장염까지 생겨, 생애 말년에는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을 겸허한 순종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유럽을 넘어설 만큼 유명해졌으나 그 만큼 더욱 고독해졌다. 그는 삶의 요구를 최대한 금욕적인 수준까지 절제하였다. 칼빈은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살았다. 그는 고통을 감수하며 교회와 강의실에 실려가기까지 하면서³⁴⁾ 그의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는 그가 철저한 소

31) Calvin, *Institutio*, III, 10, 6

32) Robert Knudsen, “칼빈주의가 문화에 미친 영향,” 홍치모 편집, 『칼빈과 낙스』, 2009, 153

33) M.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ed., T. Parson and R. H. Tawney (New York: Scribner, 1958), 1ff., 98ff.

34) Joachim Staedtke, *Johannes Calvin: Erkenntnis und Gestaltung*, 정미현 역, 『장로교의 뿌리 칼빈』, 만우

명(召命)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칼빈의 후예인 낙스, 카이퍼, 에드워즈, 버카우워, 브룬너, 틸리케, 한경직, 박형룡, 박윤선 등 칼빈주의자들은 소명으로 삶을 산 자들이다.

6. 기독교자의 자유론: 아디아포라(adiaphora) 교리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론에서 결실되는 “기독교자의 자유론”을 다루었다. 이 자유 없이는 기독교자는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며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다.³⁵⁾ 칼빈은 기독교자의 자유로서 율법과 영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자유를 오용하고자 하는 세속주의와 율법에 얽매이는 금욕주의 모두를 반대하였다. 칼빈이 강조한 기독교자의 자유는 영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칭의를 통하여 법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자유로운 순종이기 때문에 기독교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자유는 신앙의 순종에서 역설적으로 향유된다.

칼빈은 기독교자의 자유론의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두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신앙의 자유를 강조한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 사용을 인간의 자유에 종속시켰다(롬 14:14).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행사할 때 본질적으로 부정(不淨)한 것은 없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정(不淨)하다. 더럽다고 보는 자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달1:35). 깨끗하다고 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죄다. 문화적 활동이란 신앙의 여하에 따라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 칭의의 교리는 인간을 죄에서 자유

와 장공, 2009, 163

35) Calvin, *Institutio* III, 19

롭게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문화적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그러나 배교자의 문화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후세에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한다.

둘째, 절제를 강조한다. 문화적 업적과 부의 추구 자체가 악이 아니다. 그것들을 소유하여 그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절제와 균형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되는 것이다.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며,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를 잃고 세속적 쾌락에 탐닉하고, 현세적 즐거움에 취하며, 향락에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³⁶⁾

칼빈주의는 개인의 고유한 영역, 제 3의 영역, 아디아포라(adiaphora, 중요치 않는 부차적 영역, 불간섭의 영역)를 주장한다.³⁷⁾ 이 영역은 교회나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바로 양심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음악, 건축, 기술, 교육, 과학, 사회의 축제, 의식주(衣食住)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 이 영역은 기독교자의 자유의 영역이다. 이 “기독교자의 자유론”에서 칼빈은 아디아포라를 교회와 국가로부터의 해방 영역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문화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 칼빈주의는 진보주의요 적극적이다. 이 영역은 양심의 영역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면에 있어서 대면(對面)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교회와 국가가 주관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신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영역이다. 가족, 결혼, 직업의 선택, 사상의 자유, 양심의 결단 등은 교회나 국가가 강요할 수 없는 신자의 고유한 영역이다. 문화의 영역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해 있으며, 교회와 국가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나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자유도 아니다. 인간은 신앙 안에서 중생함으로 칭의를 받으며, 성화하는 말씀을 통해서 문화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36) Calvin, *Institutio*, III.19.9 그리고 III. 6-10

37)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성암사, 1984, 137

7. 창조의 질서(가족, 교회, 직장과 국가) 긍정

칼빈주의는 가족, 교회, 직장과 국가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로서 긍정한다.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이다. 가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간에 특별한 상위(上位, superordination)와 순종(subordination), 머리와 몸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칼빈은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고 중세교회가 교회법으로 규정한 성직자의 독신생활을 거부(拒否)하였다. 독신생활은 억제할 수 없는 욕정에 사로 잡혀 간음을 범하게 하기 때문이다.³⁸⁾ 칼빈은 수도원적 독신의 삶을 비난하면서 남녀의 자유스러운 결혼을 창조 질서요 신자의 자유라고 보았다.³⁹⁾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구속의 질서이다. 교회는 영적 영역이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나 항상 구체적인 지역적 조직체를 가진다.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다스리도록 도와주고 감시해야 한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 설교, 세례, 성찬, 권징을 베푼다. 칼빈주의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막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 사이에 권리와 영역 분리를 주장하였다. 개혁교회는 제네바 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장로와 집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무기명 투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시민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풀뿌리 민주주의 토양을 형성하였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제도이다.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통치자이나, 통치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⁴⁰⁾ 하나님은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권위, 권력을 부여하였다. 국가는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

38) Calvin, *Institutio*, IV, 12, 23-28

39) Calvin, *Commentary on 2 Timothy* 4:13

40) Bohatec,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 169, 171

나님의 은혜로운 질서에서 생겨난 것이다. 정의로운 국가 권력은 하나님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권위이다. 통치자는 그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엮어 내며,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며 실정법(實定法)을 집행한다.

이러한 칼빈주의의 국가관은 긍정적이었고, 근대 입헌국가의 초석이 되었다. 중세교회는 국가를 교회의 시녀로 보았고, 재세레파는 국가를 사탄의 종으로 보았다. 이에 반하여 칼빈주의는 국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았다. 국가는 공권력을 집행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악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욕심을 제어하여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의 사회생활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는 공권력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통치자의 권좌는 실정법에 근거하며 자신의 자의와 교만을 억제함으로써 인간 삶에 있어서 명예스러운 권좌가 된다.⁴¹⁾ 그러므로 시민으로서 기독교인은 이들 통치자와 행정관리들을 존경하고 이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기독교인의 영적 자유는 행정관리에 대해 복종하는 시민의 의무와 일치한다.⁴²⁾ 행정관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의식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는 사회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들은 참된 종교가 대중들의 참람한 태도에 의하여 침범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⁴³⁾ 만일 행정관리가 인간 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⁴⁴⁾ 만일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에 거역하는 것을 명령한다면 시민들은 이에 불복종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권위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41) Calvin, *Institutio*, IV, 20, 1

42) Calvin, *Institutio*, IV, 20, 1

43) Calvin, *Institutio*, IV, 20, 2

44) Calvin, *Institutio*, IV, 20, 9

항의해서는 않된다. 시민들은 국가에 복종해야 하고, 군 복무와 납세의 의무를 함으로써 국가의 안녕에 기여해야 한다.

8.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저항의 권리

칼빈은 불의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의 불법과 불의를 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경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⁴⁵⁾ 하나님께서 장차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⁴⁶⁾ 칼빈은 하나님이 시민들을 일으켜 폭군을 제거하시든지 다른 통치자를 보내어 폭군을 심판하신다고 말한다.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정치인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실정법을 어기는 폭군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칼빈은 이것은 “신성한 저항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칼빈의 사상은 그의 열성적이고 영향력 있는 제자였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John Knox, 1514-1572)에 의해서 혁명의 권리로 발전한다. 낙스도 처음에는 칼빈의 입장에 동의했으나 메리 여왕(Mary of Guise)이 영국 여왕으로 즉위한 후 바로 개신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하자 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하였다. 낙스는 간신히 런던을 탈출하여 프랑스의 디에프에 도착하자 혁명을 지지하는 글을 쓰기에 이른다. 참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행동이기 때문에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낙스의 혁명 사상은 농민전쟁의 지도자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 1490-1525)와 다르다.

45)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성암사, 1984, 134

46) Calvin, *Institutio*, IV. 20. 17-32

47)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성암사, 1984, 135

독일의 뮌헨은 평범한 농민들의 봉기를 주장했으나 나스는 귀족 계급에 의한 조직적인 무력봉기를 기대하였다. 이 단체는 조직화된 정당이나 다름이 없었다. 스코틀랜드에는 귀족동맹(the Lords of Congregation)이 형성되어 메리정권을 무너뜨린 것이다.⁴⁸⁾

세계사를 보면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유럽과 미국에 있어서 시민 자유를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일대 교회사 교수 워커(W. Walker)는 다음같이 피력한다: “제네바의 개혁자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후 칼빈주의의 영향은 유럽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⁴⁹⁾ 그리하여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곳 마다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칼빈의 후예들은 민주정치 형태의 정부를 세웠다. 그리하여 시민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구현되었다.⁵⁰⁾

9. 삶의 체계: 칼빈주의는 문화변혁 운동

칼빈주의는 성령의 일반사역과 특별사역을 구분한다. 성령의 일반사역은 인류의 일반적 행복을 위하여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탁월한 재능, 과학, 의학, 수학, 철학, 변증학, 수사학 등의 재능을 부여하시는 것이며, 성령의 특별사역은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며 성화되는 은총이다. 전자는 일반은총이며, 후자는 특별은총이다. 칼빈주의는 학예나 공예에 나타나는 자연적 은사는 성령의 일반 은사로 본다. 이러한 칼빈주의적 정신에서 유수한 개신교 대학들(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희턴대, 숭실대, 연세대, 서울여대, 한남대, 계명대

48) 홍치모, 권태경 편저, 『칼빈과 나스』, 제 8장 칼빈과 나스, 새한, 2009, 193-210

49) Ibid, 그리고 W. Walker, 민경배 옮김, 『세계기독교회사』, 기독교사회, 1982

50) I. T. McNeill, ed, *John Calvin on God and Political Duty* (New York: Liberal Arts, 1950), vii ff.

등)이 설립되었다.

칼빈주의는 일반은총론을 문화적 낙관주의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칼빈주의는 도르트회의(Dordt synod)를 통해서 아르미니안주의(arminianism)가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인간 이성은 철저히 하나님 계시의 조명을 받으며, 절대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지 아니할 때 이성과 윤리는 왜곡되어 오늘날 소위 기독교 대학에서조차 불가지론과 세속주의(심지어 개혁교회 안에서 성개방, 동성애 인정)가 득세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문주의는 에라스무스처럼 기독교와 이성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윤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중생의 이성과 윤리여야 한다.

칼빈주의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빛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사회, 경제, 정치적 삶을 가능케 하고 활성화하는 누룩의 역할을 한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그럴 때 교회는 사회질서에 대하여 변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⁵¹⁾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가 봉직하던 교회의 당회와 목사회를 통하여 제네바 도시(都市)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출신인 스코틀랜드인 존 낙스는 칼빈의 언약 사상과 문화변혁 사상을 계승하여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국가로 변혁시켰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가로서 서구 세계에 근대 민주주의의 서막을 열었다.

칼빈주의는 삶의 총체성(신학, 법률, 의학, 예술, 과학, 철학 등)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서 조명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51) André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23

단지 교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예술 등 삶의 모든 분야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시에 이러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문화적 위임(cultural mandate)을 인간에게 부여 하셨다. 역사적 칼빈주의는 청교도주의로 이어지면서 막스 베버(Max Weber) 등이 논구한 것 같이 근대 서구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초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양심과 신념의 자유 개념을 통해 정치적 자유의 이념을 발전시켰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화란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다.⁵²⁾

칼빈의 문화변혁의 착상을 명료하게 수행한 학자가 바로 20세기 화란의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였다. 그는 1899년 프린스턴 신학교의 스톤강좌(Stone Lecture)에 초청을 받아 『칼빈주의 강연』(Lectures on Calvinism)을 했는데 여기서 그는 칼빈주의를 “삶의 체계”(life system)로 보고, 종교, 정치, 과학, 예술과 미래와 관련하여 칼빈주의를 서술하였다.⁵³⁾ 이러한 카이퍼의 신칼빈주의에 이르러 칼빈주의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정치적 문화적 사상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칼빈주의는 “서양 사회가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변화하던 과도기에 태어나 서양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다.” 그리하여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어머니, 근대 자본주의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고, 근대 복지사회 형성과 근대 과학 발전에도 기여했다.”⁵⁴⁾

맺음말

칼빈주의는 근대 서양 문화의 형성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칼빈주의는 단지 하나의 종교적 체계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체계로서 서구 문화사에 거대한

52) 오형국, 『칼뱅의 신학과 인문주의』, 한국학술정보, 2006, 서문

53)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898, 1976.

54) “칼빈, 서양 근대문화 형성에 공헌,”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제3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2009-03-31 08:18], 기사제공=아폴로기아(<http://www.apologia.co.kr/>)

영향을 주었다. 칼빈주의는 종교개혁 정신에서 출발하여 문화적 사회변혁으로 나아간다. 칼빈주의는 보수주의에 머물거나 혁명주의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칼빈주의는 교회와 사회의 기존 체제를 인정하면서 개혁을 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위그노', 화란의 '가난한 자'(beggars), 영국의 '청교도', '장로교도', 북미의 '순례자 선조들'(pilgrim fathers) 등이 추구한 것은 세상에서 선취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정치 사회적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는 칼빈주의의 산물이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에서 문화변혁 사상에 이르는 9가지 특징은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사회에 자유와 인권과 독립을 가져다 주었다. 시민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진보주의가 구현되었다. 칼빈주의의 문화사상은 프랑스 혁명, 네덜란드의 독립, 영국의 명예혁명,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 미국의 독립운동에 공헌하였다. 유럽과 미국에서 칼빈주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뒷받침한 가장 강력한 종교적 신념체계였다. 하나님의 주권(主權)인정, 하나님의 법 인정, 종교와 신앙의 자유, 불의(不義)한 권력에 대한 저항권 인정, 근면하고 성실한 직업윤리의 강조를 핵심으로 하는 칼빈주의의 문화사상은 개화기 조선에 맞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칼빈주의의 문화사상은 장로교가 다수인 조선을 미개화 사회로부터 개화시키고, 일제하에서 3.1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말살한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처한 한국사회의 반공주의 결성, 해방된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하였다.

Abstract

Younghan Kim

Calvinism is a system of thought historically succeeding the thought of

Calvin. Reformer. Calvinism has not stopped being a mere doctrinal system, but raised a campaign transforming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 wherever entering. The Dutch neo-calvinist Abraham Kuyper defined calvinism as a life system. The distinctiveness of calvinism in cultural thought are to be defined as follows. 1. the thought of absolute sovereignty of God. 2. theonomical worldview. 3. an affirmative attitude of culture: Kuyper's doctrine of sphere sovereignty. 4. the thought of divine law. 5. The thought of calling. 6. The doctrine of christian liberty: adiaphora. 7. The affirmation of the creation order. 8. the right of resistance against the unrighteous ruler. 9. The life system: calvinism as movement of cultural transformation. Calvinism most contributed to forming modern Western culture. It gave a great influence to the history of Western culture not as a mere religious system but as a life system. The eight distinctiveness of calvinism in cultural thought brought liberty, human right and independence to the society where calvinism entered. The political progressivism based on the consensus of the citizen has been realized. Calvinism contributed to the independence of Holland, the honorary revolution of England, the independence of Scotland and independence of USA. Calvinism contributed to the enlightenment of Chosun where the Presbyterianism are a majority, and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anti-communism of Korean society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liberated Korea.

Key words: Calvin, culture, system of life, divine law, adiaphora, theonomical worldview, sphere sovereignty.

참고문헌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1941,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Biéler, André.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 Bohatec, Josef. *Calvin und das Recht*. Graz: Hermann Böblaus, 1934.
- _____.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Organismusgedankens*. Breslau :Marcus, 1937.
- Calvin, John. *Institutio IV. Commentary on John. Commentary on Genesis*.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898, 1976.
- _____.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1880, Kampen: 3. edition, 1930.
- Letham, Robert. "Calvin's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in the Context of his Overall Theology," in: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편), 『칼빈의 성찬론과 오늘날의 개혁교회』, 2010. 57-116
- McNeill, I.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 Reid, W. Stanford (e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홍치모, 이훈영 역. 『칼빈이 서양에 미친 영향』,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109-141.
- _____. "The Impact of Calvinism on Sixteenth Century Culture.,"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Reformed Faith and Action* 10, 1967, "16세기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전파," 13-33.
- Knudsen, Robert D. "칼빈주의가 문화에 미친 영향" in; 홍치모, 권태경 편집, 『칼빈과 낙스』, 2009, 130-159.

- McNeill, I. T.(ed.). *John Calvin on God and Political Duty*. New York: Liberal Arts, 1950.
- Marsden, George M. “미국의 ‘기독교적 기원’: 하나의 사례로서의 청교도 뉴 잉글랜드,” in: 『칼빈이 서양에 미친 영향』, 293-320.
- Staedtke, Joachim. *Johannes Calvin: Erkenntnis und Gestaltung*. 정미현 . 『장로교의 뿌리 칼빈』. 만우와 장공, 2009.
- Van Til, Henry R.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성암사, 1984.
- Wallace, Ronald S.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Grand Rapids: Baker, 1988.
- Weber, M.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ed., T. Parsons and R. H. Tawney. New York: Scribner, 1958, 1ff.
- 김영한. 『21세기와 개혁사상』(III), 제 6장 개혁주의 철학사상.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69-223.
- _____. 『한국기독교문화신학』, 7장 카이퍼와 스킨더의 신학적 문화론. 성광문화사, 1995, 193-223.
- _____. “칼빈과 문화”(전광식 엮음. 『칼빈과 21세기』. 부흥과 개혁사, 2009, 285-311.)
- _____. “문화신학으로서의 칼빈신학”(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편)). 『칼빈의 성경해석학과 신학』. SFC, 2011, 200-220.
-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이레서원, 2001.
- _____. 『개혁신학의 광맥』. 이레서원, 2001.
- 박경수. ‘개혁교회의 요람 제네바아카데미(1559)에서 배우는 신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2012.02.03. 23:00, <http://blog.daum.net/iyunjeong/8718055>
- 오형국. 『칼뱅의 신학과 인문주의』. 한국학술정보, 2006.
-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편). 『칼빈의 목회와 윤리, 사회참여』. SFC, 2013.

_____. 『칼빈신학 2009』, 성광문화사, 2009.

최윤배. 『깁뎡신학 입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12.

_____. 『잊혀진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 대한기독교서회, 2012.

한국교회갱신연구원(편). “칼빈, 서양 근대문화 형성에 공헌.” 제3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2009-03-31 08:18]. 기사제공=아폴로기아(<http://www.apologia.co.kr/>)

홍치모, 권태경(편저). 『칼빈과 낙스』, 제 8장 칼빈과 낙스. 새한, 2009.